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76 7 월호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합시다

〈요 8 : 34 - 36〉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생명체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다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종」이라는 말을 듣기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었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롬 3 : 10)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자유를 원하고 있으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죄의 종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을 범하는 「허물」이 있고,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약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끌리어 잘못을 범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원하고 있으면서도 돈 때문에 범죄하여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미신에 이끌리어 짐을 사거나 이사하는 날까지도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고 결혼·여행·사업 등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미신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세에 눌려서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도 빼앗긴 채 권세의 종이 되어 권세를 가지고 온갖 죄를 범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과 편견의 종이 되어 당파를 만들고 자신과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은 아무리 울고 발버둥을 치며 힘써 수양을 쌓는다 한지라도 죄의 결박을 벗어나 참 양심의 자유를 누릴 힘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업의 실패로 몇 억의 부도수표를 내고 깊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무리 후회하고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죄에 깊이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며 방황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어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피를 제물로 받으시옵고 역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셨으며, 돌아가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흘려 주신 속죄의 진리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함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그 마

음 속에 물뱃듯 부어주셔서 속사람이 권능을 받아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활에 모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의 행복은 그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충성하면서 어진 왕에게 사랑을 받는 종과 악한 반역자의 앞잡이노릇을 하며 반역하는 종과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의인의 종과 악인의 종의 차이가 크다면 하나님의 종과 악마의 종과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그 섬기는 자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꿈에라도 악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더러운 미신의 종도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리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생활을 하여야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맡은 사람 가운데는 일을 잘하여 크게 이익을 남기는 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신히 본전만 남기는 사람이 있고, 더러는 이익도 남기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듯한 간판만 내어 걸고 하나님의 일과 나라의 일을 맡긴 하였으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욕심으로 양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못될 뿐 아니라 이웃과 나라에까지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욕심에 빠져 더러운 죄악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아 각자 자기의 책임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러므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을 갖되 매를 놓치지 말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피로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에게 사명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을 떠나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며 범사에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선한 일에 담대하게 전진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성공자의 높은 명예와 책임을 바로 감당한 자의 권위를 누리시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사시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그 날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주(註) : 지면관계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봉사의 달을 시작하며

—여름 태양처럼 뜨겁게 봉사하자—

월간 증현

7월의 행사

- 4/산업전도교육부 개교·제직회·남전도회 임원회·권사회 임원회·재정위원회·동산관리위원회
- 6/산업전도회 창립총회
- 11/남전도회 월례회·권사회 월례회·월간 증현 편집위원회·여전도회 임원회
- 15-17/청년부 하기수양회
- 16-17/제일성가대 하기수양회
- 17/남전도회 야외예배
- 18/백주절·여전도회 월례회·전도위원회·재정위원회
- 19/교육위원회
- 19-23/대학부 하기수양회
- 22-26/제 5 회 농어촌교회 평신도지도자 초청 훈련
- 25/구역권찰회·주교 각부 월례회
- 26-29/유치부·초등부 여름성경학교
- 27-30/중등부·고등부 하기수양회

7월호 차례

- 〈설교〉 하나님의 증으로서 봉사합시다 2
- 특집
 - I. 명예를 함께 지는 사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 좌담) 4
 - II. 성경에 나타난 주일의 모든 것 8
- 〈기획연재 ③〉 우리교회
 - 노방전도·축호전도/오태용 12
 - 〈구역장노우트 ⑥〉 해외이주 예정자 교육
/백성룡 목사 15
 - 〈캠페인〉 뜨겁게 봉사하자 13
 - 〈필립〉 여름행사의 필요성/정은표 집사 13
 - 〈관종가매설 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4
 - 〈책소개〉 십계명 강해/조신근 집사 14
 - 〈구역소식〉 15
 - 〈교회뉴스〉 16
 - 〈1976년 하기행사 계획〉 18
 - 〈편집후기·표지설명〉 18
 - 〈화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9
 - 〈서한문〉 선교사를 꼭 보내주세요 20

한번은 요한과 야고브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에 대하여 부탁을 하였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는 데 있었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목적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7월부터 8월까지의 증현교회가 해마다 가지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봉사의 달을 시작한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하기 수양회, 농어촌교회 교역자·지도자 초청 훈련, 농어촌전도대 파송 등 수많은 행사들이 잇달아 있다. 남들은 여름 바캉스라고 하여 산으로 해변으로 더위를 피해 가는 무더운 여름철에 구슬같은 땀을 흘리며 봉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게 봉사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모든 것이 그러하듯 봉사에도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다(요 12:26). 가난한 자들에게는 사랑의 손길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죄에 억눌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마침내는 피까지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봉사하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요 12:26)고 하셨다. 즉 봉사자의 댓가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사자들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볼 때 봉사자는 결코 외롭고 고독스러운 자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자이다.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은 이번 여름에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 여름의 태양처럼 뜨겁게, 뜨겁게 봉사하자.

〈주간〉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K).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명예를 함께 지는 사랑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 일시 : 1976년 6월 24일 오후 9:00—10:30
- ◇ 장소 : 「월간 중원」 편집실
- ◇ 사회 : 정은표 집사(월간 중원 간사)
- ◇ 참석자 : 안일승 목사(충남 삼광교회)
허봉춘 목사(강원도 홍천제일교회)
이정준 권도사(강원도 양양중앙교회)
- ◇ 기록 및 정리 : 안영자 기자

주문식 목사(강원도 횡성제일교회)
권삼조 권도사(강원도 자미원교회)

□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은 물질적
인 것 이상의 차원 높은 협력.

〔정〕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신 것은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간의 상호 협력문제를 놓고 농어촌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도시 집중현상으로 농어촌교회는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면에서 특히 더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이 시간을 빌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으로써 농어촌교회에 대한 도시교회의 보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이번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에 참가하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허〕 잠시도 떠나기 어려운 농어촌교회 실정으로 처음은 좀 망설였지만 막상 훈련을 받고 보니 역시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권〕 농촌에 있을 때에는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너무 격리되어 있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훈련을 통해 물질적인 것 이상의 차원 높은 도시교회의 농어촌교회에 대한 협력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정〕 네, 두분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을 보니 다른 분들도 모두 동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있어 실제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것인지 안복사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 농어촌교회의 실제적인 당면문제들은...

〔안〕 저는 먼저 농어촌교회 발전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인적 자원의 유출이라고 봅니다. 근대화 과정에 따르는 농어촌 주민의 도시 이주는 특히 젊은 층과 지식층에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교회는 지도자와 봉사할 젊은 일꾼이 없어 절절해지죠. 다음은 청장년들의 지나친 음주행위와 황금만능사조의 만연으로 인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추구할 줄 모르는 무지라고 볼 수 있는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부녀자들의 미신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 제가 지금의 횡성제일교회로 부임한 것은 일

년전 일입니다. 부임해 보니, 발전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 데도 침체된 상태였어요. 그때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교회가 설립된 지 8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짧은 역사도 있었지만 인구 2만 정도의 읍에 70년이 된 감리교회를 비롯하여, 성결교회, 천주교회는 물론 안식교, 여호와와 증인 등 온갖 교회가 다 있더군요. 그런데다 담임 교역자가 70이 다 되신 노인이어서 모든 면에 있어 교회 활동이 부진하여 발전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마저도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연 인근 주민들은 교회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된 모양입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자라 60여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근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고쳐 빠르게 인식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저는 지금의 양양중앙교회에 부임한지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가 보니 교인이 모두 5명뿐이더군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이 38도선에서 40여리나 더 북쪽인 수북지구인데다가 양양에서도 아주 번두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임 교역자가 주민들과 극한적인 대립을 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현재의 교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현재 교회가 세워진 자리는 용머리라고 하는 곳으로서 그곳 주민들 때에는 구별된 곳으로 생각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로 거기다 교회를 지었으니 교회야 제바로 서야 할 곳에 섰지만 그곳 주민들의 비위를 몹시 건드린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교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자녀들에게까지 “용머리 위에 세운 교회에 나가려면 차라리 유치원이 있는 안식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이런 형편에 교회의 일꾼이라고는 22세의 여자 한 사람뿐이어서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 교역자의 수준이 문제. 그러나 교역자의 최저생활 보장마저 어려운 실태니...

〔허〕 저는 우리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어



촌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 자신도 교역자이기 때문에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의 수준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력있고 열심있는 교역자가 이끌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해도 농어촌교회도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교역자 수준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같은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첫째가 교역자들의 생활보장입니다. 대부분의 농어촌교회가 재정능력이 약하여 교역자의 최저생활비 보장마저 어려운 실태이니, 교회가 원하는 정규신학을 나온 실력 있는 교역자는 모실 수 없고 그렇다고 복회자가 없는 상태로 교회를 비워놓을 수도 없는 상태이니라 교역자면 다 똑 같은 교역자인 줄 알고 와 주시는 것만도 고마워 아무 교역자나 모시다 보니까, 자연 교회가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교역자나 지도자들이 농어촌교회를 맡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양상이 훨씬 달라졌겠지요.

다음은 도시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도록 발전은커녕 아직도 미자립교회 상태로 남아 있는 교회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동기에 서든 도시교회가 필요하다고 느껴 교회를 개척해 놓고는 미리 내정해 놓은 교역자를 파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능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정실에 취우쳐 파송하기 때문에 교역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끈기있게 노력하기보다는 생활기반 수단으로 머물러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척한 지 10년이 넘도록 자립도 못하느냐고 힐책하기 전에 농어촌교회의 이같은 사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속신앙이나 사이비종파에 대한 대응력이 너무도 약한 것입니다. 메시지도 강하지 못하면서 그저 말씀, 말씀만 하지 교역자나 교인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전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이교 정통으로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영적인 충족을 주지 못하는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훗집회에 참석하여

무척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훈련이 끝나고 내려갈 때에는 큼직한 북을 하나 사가지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일동 웃음)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외쳐 찬송하며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신비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교인들을 전전하게 인도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앞으로 기회가 있어 우리 교회에 오시면 훗집회에 참석하시게 될 것입니다.

□ 일부 교인들의 술·담배 행위가 교회 발전에 장애를...

《권》 우리교회는 일년 반만에 5명이 40여명으로 급성장하여 앞으로 3년 정도만 지나면 완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 광산지대이고 또 그 지역의 유일한 교회이고 보니 감리교·성경교·장로교 할것없이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같이 된 것은 좋으나 타 교파에서 온 교인들의 신앙생활 태도가 우리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방향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건실해 보였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술·담배는 물론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할 주일에도 주일 아닌 날과 별로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교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제지를 하면 아주 난색을 보입니다. 다른 교인들이나 특히 성도는 주초(酒草)를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인근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보아 큰 걱정입니다.

《정》 네, 이제까지 여러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농어촌교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가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월간 충현」에서 농어촌교회 교역자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회의 지도자 부재 현상과 인적 자원의 빈곤, 재정능력의 빈약, 교회와 인근 주민들과의 관계, 일부 교인이나 교역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흐려진 교회의 이미지를 바르게 하는 문제, 교역자 자녀의 교육문제, 도시교회와의 거리감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위축과 교역자·교사의 자질향상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좁혀서 이같은 농어촌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도시교회와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지도자 부재현상, 재정능력의 빈약,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흐려진 교회의 이미지를 바르게 하는 문제, 교역자의 자녀교육, 교역자와 교사의 자질향상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현교회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교회 교역자·지도자 초청훈련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협력하는 도시교회의 좋은 보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까만 안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 농어촌교회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도시교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안》 농촌 실정으로는 이번 충현교회가 실시한 훈련과 같은 좋은 기회가 있어도 참석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농어촌교회 인적 자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시교회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농어촌에 직접 오셔서 밤시간이라도 교회 청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제가 느낀 것은 지도자 자질향상에 있어 아주 유익하고 격렬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느낀 것은 도시교회에 비해 농어촌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주》 저희 교회만 보아도 교사를 스스로가 부족을 느끼고 자신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가끔 있지만 교회 재정현상 용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골 교사들은 보는 것이 적으니 자연 느끼는 것도 적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모든 교회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농어촌교회 교사들을 초청 훈련함으로 새로운 지식과 아울러 우리나라를 해보겠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사훈련 뿐만이 아니라 기타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도시교회가 계속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 우리 교회는 지금 5명의 교사가 있는데 그 중 4명이 광부여서 좋은 훈련의 기회가 있어도 참석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편에 있는 농어촌교회 교사들을 위해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겠다고 보는데 도시교회에서 그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겠지요.

《이》 여러분들이 교사들의 교육문제나 자질향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저희 교회 형편을 생각하니 부럽기 그지 없군요. 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단 한사람밖에 없는 형편이니 문제를 삼을 만한 형편도 못됩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 큰 충격을 받고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교인이라야 모두 18명이지만 복음전파와 종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볼 작정입니다.

《허》 우리 교회는 현재 23명의 교사가 있는데 제가 6년전 부임할 당시만 해도 농어촌의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교사 부족 문제를 우리 교회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일꾼을 키워서 일을 시키기로 하고 중학생 6명을 선택하여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거쳐 한 사람도 서울로 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현재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또 교사로서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농어촌교회 자체가 필요한 일꾼을 키워 봉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농어촌교회 자체가 필요한 일꾼을 키워 봉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현재 있는 강원도의 실태를 보면 신학교가 없는 곳은 강원도 한 곳뿐입니다. 당장은 정규 신학교의 설립이 어렵다고 해도 그 넓은 지역에 당장 고등성경학교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산간벽지에 들어가 일할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 보았으면 하는데 현재 우리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교회와 힘을 합하여 이러한 지도자 양성기관을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농어촌교회의 지도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권》 제 경험으로 볼 때 농어촌교회의 또 다른 문제는 주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평신도에 대한 훈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도하면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여질 그들이 계속적인 지도를 받지 못해 몇년 동안의 주일학교 교육이 허사로 돌아가는 듯한 것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아픉니다.

《주》 충현교회 주보를 보니, 한 주일 헌금이 250여 만원이나 되는데 이 정도면 중류급 시골교회의 일년 예산입니다. 이것을 보고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큰 만큼 무절제하여 낭비되는 것도 시골교회에 비해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데 간혹 도시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점을 염려하는 분이 있더군요. 도시의 큰 교회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적은 것일지라도 시골의 한 교회 주일학교 예산이나 일년 예산과 맞먹는데 도시 교회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절약하고 아껴서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안》 그렇지요. 저의 생각에도 도시의 모든 교회가 일년 예산의 30%정도라도 농어촌교회를 위해 쓴다면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고 현재 우리 교단이 벌이고 있는 일만교회운동이 속히 이루어지고 내실도 거할 수 있겠지요. 현재 시골 교역자 가운데는 일년이 지나도 책 한권 마음대로 사볼 수 없

“설문 조사결과 발견한 또 다른 문제는 농어촌교회의 요구 사항들이 액면 그대로 이뤄진다면 농어촌교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회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도 빈약한 농어촌교회를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몰라도 자기 교회 하나만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도시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 도시교회 교인중 70% 정도가 시골교회 교인이라는데,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

《견》 도시교회 교인중 70% 정도가 시골에서 올라온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다 따고 과일 나무에 감사비로라는 것을 씁니다만 이처럼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로 인해 부흥되었다고 본다면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흔히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나 개척교회를 돕는다고 하면 경제적인 도움만을 생각하는데 보다 차원을 높여 여러가지 형태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농어촌교회 전담기구라도 둔다면 더 좋겠지요. 또 한가지는 시골에서 올라온 교인들도 몇년만 지나면 자기가 자란 시골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까맣게 잊고서 도시교인 행세만 하려합니다.

《점》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은 주로 도시교회 한편만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 발견한 또 다른 문제는 농어촌교회의 요구사항들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농어촌교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재정문제에 있어 도시교회가 무관심한 것도 사실이지만 농어촌교회가 도시교회의 협력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자세를 갖추고 타당성 있고 근거있는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시교회라고 해서 무관정 기절하지는 않겠지요.

《주》 농어촌교회가 도시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자세는 물론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골교회 교인들이 힘을 모아 하다 하다 안될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도시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하여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도움은 농어촌교회로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도시교회가 능력 없는 농어촌교회의 피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허》 개척교회를 세워도 큰 도시 주변에 세워야지 농어촌에 세우면 수십년이 걸려도 자립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강원도 교인들은 떠났다 하면 서울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강원도는 중흥교회를 부흥케 하는 원천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농어촌에서 도시로 흘렀으니 도시에서는 여러가지 도움이 농어촌으로 흘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무관정 도움을 받는

것도 돕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21년간 복회한 제 경험으로 보아 군청소재지에서는 3년, 면소재지에서는 5년이면 대개 자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년이나 5년이 지나도록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도움을 받기 전에 해결해야 할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농어촌교회 복회자의 사명감과 지도방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겠지만 도시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를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농어촌교회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의 전부인양 자만한다면 차라리 돕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유익할 것입니다. 도우려면 다각적으로 책임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 재정지원이 유일한 협력방법인양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탈피하고...

《점》 벌써 예정한 시간이 지났군요. 여러가지 면에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하신 말씀을 결론적으로 요약해 본다면 도시교회가 농어촌교회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이며, 종래의 재정지원이 유일한 협력방법인양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탈피할 때이며, 보다 폭넓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교회의 부흥은 곧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며, 도시교회의 부흥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시의 모든 교회들이 농어촌교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헌신 할 것을 다짐하며

충현교회 당회장님을 비롯하여 성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강원도 벽촌에 있는 농어촌교회 교역자를 초청하여 영육간에 후한 대접을 베풀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귀한 사명이 계속되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를 충현교회에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76년 6월 25일

제 2회 농어촌교회교역자초청훈련생 일동

성경에 나타난 주일의 모든 것

-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크리스찬의 윤리·도덕관·경건생활의 기준·태도 등이 점.....◇
 ◇.....차 퇴색되어 가면서 각자 자기나름대로의 모양과 색깔을 지니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자기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면」 「하나님의 뜻대로」로 표현하며 자기만족을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월간 총현」은 이러한 일들에 성경에 근거한 확고부동한 가치관을 정립하고자 지난.....◇
 ◇.....번의 주초(酒草) 문제와 결혼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성수주일 문제를 다룬다. 가변하.....◇
 ◇.....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합리화시키느니보다는 「이것은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일.....◇
 ◇.....니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뒤흔치고 장부다운 일이나 말이다. 이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무엇을?」「왜?」「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4페이지.....◇
 ◇.....에 걸친 금번 특집에서는 ①안식일의 의미 ②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③주일 성수의 바.....◇
 ◇.....를 태도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편집자).....◇

I.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개념을 바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안식일이란 어떤 날인지 성경을 통하여 비추어 보고자 한다.

1.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창 2:3)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역사를 6일 동안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어 이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날에 쉬심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제도는 창조 역사 직후에 애베통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다(창 8:10, 12; 창 29:27-28; 출 16:5, 23, 26-31; 20:10-11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함). 호머(Homer)는 “그리고 제 7일 축성일이 왔다. 제 7일은 거룩했다”라고 했다. 안셀름(Anselm)의 글에는 “제 7일이 신성한 것은 히브리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역시 인정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동물계 식물계의 전 우주가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제도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처음부터 우주적인 것이었다.

2.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다(신 5:12-15)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지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그 지키는 이유를 바꾸어서 애굽에서 구속받음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명하셨던 것이다(이 사실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성서적 근거가 된다).

3.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날이다(출 31:13; 렘 20:12)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여 언약을 세우면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두 가지를 명하셨으니 첫째는 할례요(창 17:9-14), 둘째는 안식일인 것이다. 할례는 몸(신체)에다 하는 언약의 표징이요,

안식일은 생활에서 하는 언약의 표징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적 표징이 무엇이겠느냐? 물으려 세례받는 일(이는 할례와 같음)이며 또한 주일을 지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생활이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

4.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성도)들에게 복주시려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창 2:3; 출 20:11; 막 2:27; 사 58:13-14)

“이 날에 복주어”의 「날」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이곳 안식의 「날」밖에는 없는 것 같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내리시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받으며(요삼 1:2) 또한 육체적으로도 힘으로써 건강의 은혜도 입어서 일도 능률 있게 되어 사업에도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근본적인 동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다음으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는 것이다. 창조역사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축복의 길이 있으니 곧 안식일을 지키는 일(창 2:3; 사 58:13-14), 효도하는 일(출 20:12; 렘 6:13), 십일조 드리는 일(말 3:10)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 섬기는 생활에서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고, 효도하는 일(제 5계명)은 성도가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에서 기본적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십일조 헌금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물질을 대하는 생활의 기본적 의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이다(막 2:28; 마 12:8; 눅 6:5)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언제나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지켜야 한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

제 하나님의 2위로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중대한 사역은 무엇이나?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룩하신 구속사역인 것이다.

6.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영원한 안식세계를 예표하는 날이다(히 4:3-11)

칼빈(Calvin)은 기독교강요 2편 8장 29절에서 “오늘의 주일을 안식하는 것은 앞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영원한 안식세계의 그림자로 상징되는 생활훈련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일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영원한 안식세계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길 수 있겠는가(제 2:1-5).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나라와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의 생활 훈련인 것이다.

II.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

그럼,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 본다.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제일곱째날에서 첫째날로 변경시킨 것은 성서적이 아니며 이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와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통합하려는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하심을 모르기 때문이다.

분명히 안식일이 일곱째날에서 첫째날로 변경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적인 사실이다. 이제 안식일이 일곱째날에서 첫째날로 변경된 성서적인 근거를 찾아 보도록 한다.

1.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뀌어졌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신 5:12-15).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지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바라보면서 자기는 그곳에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다시 되풀이하여 가르쳐 주었다. 이 때 모세는 제 1계명에서 제 3계명 그리고 제 5계명에서 제 10계명까지는 처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와 같이(출 20:1-17) 말하였는데 유독 안식일을 지키는 제 4계명에서는 대폭 수정하였으니, 즉 안식일을 지키야 할 이유로서 창조의 기념이 아니고(출 20:11), 애굽에서 구속받음을 기념으로(신 5:15) 지킬 것을 명하였던 것이다.

그럼, 왜 모세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변경했을까? 120세의 노인이라 기억력이 없어서 실수하였을까? 또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였을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은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나 지금 4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사실로 새삼스러운 사

실이 아닌데 말이다. 이는 결코 모세가 기억력이 약하여진 것이나 자기 나름대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순종했을 따름인 것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벧후 1:21)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이 제 4계명이 십계명에서 그 지키는 이유가 변경된 것은 모세의 실수나 자의(自意)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계시인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십계명)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면 먼저 율법을 받은 모세 자신이 십계명을 변경한 자로 규탄을 받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놓고 40년이 지난 후 이렇게 제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변경시켰으니 말이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제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변경시키셨을까? 이는 바로 안식일이 일곱째날에서 첫째날 주일로 변경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모세가 인도한 40년간의 시내 광야생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시대를 상징한 것으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죽었다. 마치 율법의 사명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갈 3:24).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여호수아」란 이름은 「예수」와 같은 것으로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이다. 여호수아는 그의 지도자로서 첫 사역이 요단강의 도강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음으로 메시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 법계를 멘 제사장들의 행렬 뒤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때, 우리들의 구원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구속에 대한 언약을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써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광야생활에서처럼 창조의 기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구속의 기념으로 지켜야 할 것을 명하시고 같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으로 지켰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다.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야말로 새 창조(고후 5:17)가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17에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제4계명)을 더욱 완전케 하신 것이다.

2.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바뀌어졌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시 118:24-26).

신명기 5:12-15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변경 시킴으로써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될 것을 제시하였는데 시편 118:24에서는 안식일이 일곱째날에서 첫째날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변경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시편 118:24인 「이 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에베드리는 날이란 어떠한 날인가? 바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4:11에서 이 말씀(시 118:22-23)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으며(마 21:42) 사도 바울도 에베소 2:20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시킨 것이다.

서양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이 시편 118편을 부활절에 봉독하고 있다. 더욱이 이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이 포로생활에서 귀환하여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제2성전의 봉헌식에 봉독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8편을 「새 성전 봉헌식에 부르는 기쁨과 찬송」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다. 요한복음 2:19-22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삼일만에 세울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제2성전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수와 같은 이름)였다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시편 118:24의 「이 날」은 곧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며 이 부활하신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에베드리는 날로 정하신 날이며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날에 성전에 에베드리러 나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다(시 118:). 그리고 히브리서 4:4-11에 보면, 안식일문제를 말씀하면서 “오랜 후에 다윗의 골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히 4:7-8) 하신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하였다는 이 「오늘날」은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오늘날이란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인용하여 증거하였다(행 13:30-35).

3. 안식일의 명칭이 바뀌어졌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위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제 1:10), 여기에 「주의 날」은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확정된 성경적인 근거가 된다. 요한계시록은 기록연대가 주후 95년경인데 신약 저작연대로는 말기에 속하는 책이다.

그 전까지는 주일이 「안식 후 첫 날」로 과도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예배일로 지켰던 것이다. 즉 일곱째날인 안식일도 지켰고 첫째날인 주일도 「안식 후 첫 날」(행 20:7; 고전 16:2)로 지켰던 것이다. 그 후, 주후 95년경부터는 「주의 날」로 확정되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일곱째날이 아니라, 그 명칭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Lord's day) 즉 주일인 것이다.

교부 바나바(Barnabas)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노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과 동시대

에 살던 요한 직계 제자인 폴리갑의 친구로서 안디옥 교회 감독이며 속사도인 「익나시우스」(Ignatius)의 글에 “피상한 고혼에 속지 말라 새 소망에 이른 자는 안식일을 더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였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이야말로 새 창조의 날(고후 5:17)이요, 우리의 구속이 성취된 날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의 생활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생활의 표징을 나타내는 날이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크게 영광받으신 날(빌 2:11)이요, 기독교의 교회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날이며, 신령한 복을 받고 거룩되고 즐거운 복된 날이 되는 것이다.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역사를 마치신 후에 정하신 날 에벳돈산에서부터 지켜온 날인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강조하셨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속사업과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으로서 그 지키는 이유가 변경되어 창조의 기념으로(신 5:12-15) 바뀌어졌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일인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날이 일곱째날에서 첫째날로 바뀌어(시 118:22-26), 그 명칭도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제 1:10).

III. 주일 성수의 바른 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주일을 지키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일은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모든 일을 다 정지한 후에 이 세상의 일과 말과 생각을 떠나서 거룩하게 안식할 뿐 아니라 공예배와 사예배를 드리며 필요한 일과 자비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전 시간을 보낼 것이다”고 하였다.

우리 장로회 헌법중 예배모범에는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이 날은 주일인즉 중일토록 거룩히 지킬 것이니 공동결회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율으며, 중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한 지니 세상 열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있다.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있다.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은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독서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개회 때부터 일심단합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율고 마지막 축복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율지 않다. 이와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 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사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를 하며 시편과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모든 일을 행함이

을다"고 하였다.

이제 이러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20:8-11에 있는 제 4계명의 말씀을 따라 성도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함을 정리·요약하려 한다.

1. 주일이 어떠한 날인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출 20:8절), 여기에 「기억하라」는 말은 「자각」인데 이는 「지난 것을 마음에 되새긴다」라는 뜻이다. 주일을 바로 지키려면, 먼저 주일(안식일)이 언제며 어떠한 날인가를 명심하여야 한다. 만일 주일을 명심하지 않거나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 잘 모르면 주일을 바로 지킬 수가 없게 될 것이다.

2.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셋새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 20:9), 주일을 지키려면 셋새동안에 힘써 내가 할 일을 하여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게으른 자를 책망하셨으며(마 25:31),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10)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주일 하루를 성도로서 잘 지키려면 셋새동안에 힘써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세상 일에서 돌이켜 주일을 맞을 실제적인 준비를 하여야 된다(목욕이나 이발, 시장보는 일 등 영육간에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주일에는 세속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10), 여기에 일하지 말라는 「일」은 「노동」을 뜻한 말로서 육체적인 생활을 위하여 계속되는 영업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의하면 「농사 짓는 일」(출 34:21), 물건을 운반하는 일(느 13:15; 렘 17:21), 나무하는 일(민 15:23), 장사하는 일(암 8:5), 그리고 오락(운동경기, 등산, 극장 등)하는 일(사 58:1)을 금하고 있다. 마카비 때에는 월수에게 죽는 일이 있더라도 무기를 들고 싸우지 말라고 하였다(말천 2:32-38).

여러튼 주일에는 셋새 동안에 하던 세상 일을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 안식일 곧 「샤바드」라는 말은 「그친다, 쉬다, 멈춘다」라는 뜻이다.

4.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거룩히 지키라"(출 20:8절), 여기에 거룩히는 「키타슈」라는 말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뜻이며, 불결한에서 빼내어 하나님께 순결하게 성스럽게 바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 일은 하지 말고 그 대신 이 날에는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지키라」는 말도 「샤론」이라는 말로서 명령형을 썼는데, 이 말의 좁은 뜻은 「일꾼, 파수꾼」 또는 「목자가 양을 지키다」는 뜻이고 넓은 뜻으로는 「안전하게 보존한다」 또는 하나님이나 사람 사이의 「계약을 성실히 준행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9)고 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셋새동안과는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준행하는 날이다. 또한 주일은 결코 거저 쉬는 「공일」(空日)이나 「노는 날」(Holiday)이 아니고 「거룩한 날」(Holyday)이며 「땅에 속한 날」(Earthly day)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날」(Heavenly day)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날이다.

5. 주일은 하루종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 「안식일」은 안식일의 일부분만이 아니고 종일토록 지켜야 된다. 오전에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평일과 같이 세상 일을 한다면 안된다(1부 예배드리고 등산가거나 장사하는 일). 주일은 하루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주일의 근본 의의와 정신을 살려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소극적인 동기보다는 축복의 언약을 믿고 지켜야 하며,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으로 지켜야 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18면에서 계속)

1976년도 여름 행사 계획

12. 전도위원회 제5회 농어촌전도대 파송

- 주제 :
- 일시 : 8월 9일~8월 13일
- 장소 :
- 참가대상인원 :
- 소요예산 :
- 13. 제4회 장로수양회
- 주제 : 미정
- 일시 : 8월 10일~8월 12일(예경)
- 장소 : 동해안
- 참가대상인원 : 26명
- 소요예산 : 미정

- 강사 : 미정
- 14. 노년부 제1회 하기수양회
- 주제 : 우리의 속은 날로 세롭다(고후 4:16)
- 일시 : 8월 23일~8월 24일
- 장소 : 유년부실
- 참가대상인원 : 학생 80명, 교사 15명
- 소요예산 :
- 강사 : 미정
- 15. 영아부 제2회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 주제 : 언제나 에쁘게
- 일시 : 8월 25일~8월 27일

- 장소 : 영아부실
- 참가대상인원 : 학생 100명, 교사 15명
- 소요예산 :
- 강사 : 석대운·정소영
- 16. 전도위원회 제2회 군중사병훈련
- 일시 : 6월 28일~7월 1일
- 장소 : 제1사단 하기휴양소
- 참가자 : 58명 (군목 3명, 군중사병 55명)
- 소요경비 :
- 강사 : 청기성·이연호·이승근

우리 교회의 노방전도·축호전도

“전도——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려면, 전도의 조직화·전도의 다각적 연구·전도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 대 응
(월간 총원 간사·중등부 교사)

“너희는 가라”(마 28:19)고 한 그리스도의 명령은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규범이다. 더우기 말세지말을 당한 지금 주님께서는 더한층 강력하게 호소하며 부탁하신다.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조용히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도특집 두번째로 이달에는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다루고자한다.

1. 노방전도

성경찬송과 전도지를 든 남녀 청장년들이 무리지어 거리를 행보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넓은 공간을 차지, 칠팔십명의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둘러선다. 지도자의 인도로 은혜스러운 찬송을 힘차게 몇번 부른다. 보고 들을 수 있는 행인들이 시선을 던지고 더러는 주위로 불러들기도 한다. 기도가 끝나자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한다. 이와 동시에 일부는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통행인들에게 전도지를 배포한다. 수백장이 삼시간에 소비된다. 그런 다음 장소를 옮긴다.

교회는 6월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정하고 세번에 걸쳐 노방전도를 실시하였다. 즉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를 주축으로 첫주에는 78명이 남산공원과 장충공원으로, 둘째주에는 104명이 명동으로, 그리고 셋째주에는 114명이 각 고속버스 터미널로 전도를 나갔다.

위의 두가지는 우리 교회 각 주일학교에서 매달 실시하고 있는 노방전도의 실례를 서술한 것이다. 즉 전자는 노방전도 현장이고 후자는 노방전도 참여 인원수와 대상지역 등의 뉴스적 보고이다. 대략 이성과 같은 범주 안에서 유년부 이상의 주일학교 및 남녀 전도회는 월 2회 정도 노방전도를 나간다. 중고등부는 「70인 전도대」를 중심으로, 유초등부는 각각 30여명씩이 약간의 훈련을 받고 나간다. 노방전도 그것만을 위해서는 주로 명동이나 평화시장, 고속 터미널 등으로 나가 개인전도도 겸하기 위해서는 한가로운 공원지대를 택한다.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방전도는 무슨 특별한 유형이나 독특한 방법은 없고 그저 어느 부서나 똑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방전도는 몇가지 효과와 목적을 노린다. 그 첫째는 시위적 효과이다. 무관심이 미덕인 도시인들에게 기독교의 관심을 강요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방전도를 통해 길 잃은 영혼은 물론 낙심한 신자를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 세째는 전도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쉽사리 전도의욕을 교습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 성장과 나아가서는 교회의 부흥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2. 축호전도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축호전도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전도에 비해 많은 힘과 노력이 든다. 그렇지만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는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주님께서도 이 방법을 여러번 실천하셨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축호전도를 계획하여 실시해 본 적이 아직 한번도 없다고 한다. 8월에 놓여진 전도대로나 파송되어야 겨우 해보는 실정이다.

이렇듯 교회가 축호전도에 무관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단일수록 축호전도에 힘을 쏟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가 전도를 말하지만 그저 복음을 허공에 던져 놓고 필요한 사람은 받아 가지라는 식의 전도보다는, 착실히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축호전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도일 것이다. 성공에 있어 이 축호전도를 능가할 만한 전도는 없다고 한다. 축호전도를 받은자 중 40%가 결신을 하고 신앙을 고백했다고 통계는 말한다. 이러한 황금어장을 애써 교회가 외면하는 듯한 연상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축호전도를 요하는 대상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일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마든지, 보다 적극적으로는 일정 지역에 종교인구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전도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제할 일을 다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에 간 영혼들이 저의 후손의 구원을 절규하고 있다는 저 처절한 영적 현실은 어떤 필적나 나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 문제와 해결

동가홍상(同價紅裳)의 원리는 전도에도 통한다. 전도가 한낱 「야의 놀음」이 아닌 이상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다. ① 전도의 조직화: 현재와 같이 열심만 있다고 해서 아무나 동원되는 무계획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② 전도의 다각적 연구: 전도대상 지역 조사라든지 전도방법 등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전도 훈련: 전도인의 성경지식, 전도에 임하는 태도, 결실 기술, 신앙 인격 등의 훈련 교육이 체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 힘써 일하라 !

때가 아직 낮이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
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
라. (요 9:4)

1700원 기념

여름 행사의 필요성

정 은 표

우리교회의 올해 여름 행사는 주일학교 각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하기 수양회를 비롯하여 농어촌 교회 교역자·지도자 초청훈련, 군중사병훈련, 농어촌 전도대 파송 등 모두 16전이다. 이에 소요될 예산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밝혀진 것만도 모두 670여만원이며 인원은 2,900여명이 참가하게 될 것인데, 6월 21일 시작된 올 여름 행사는 8월 말에 모두 끝나게 된다.

이같은 우리교회 여름 행사의 내용은 교육·훈련·전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농어촌교회 교역자·지도자 초청훈련과 같은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시도조차 된 일 없는 특징 있는 사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 가고 있다. 농어촌 전도 또한 아직까지 전도 후 사후처리에 있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까지의 경험에 힘입어 실효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주일학교의 계절학교와 수양회도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주일학교의 큰 사업 중 하나로 굳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모든 여름 행사가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되기 위하여는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특히 계절학교와 수양회는 더욱 그러하다. 계절학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리와 꾸준한 연구가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지식전달을 중심한 평소의 교육 방법이 그대로 답습될 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목적은 있지만 현실적인 목표가 없는 교육이 아무런 자각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등부 이상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수양회는 대개 부흥회와 성경공부 형식으로 일관되어 왔는데 이 또한 장소를 달리하였을 뿐 평소의 교육과 대동소이하다. 수양회 장소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교육은 평소 자질구레하고 실속 없는 행사들을 걸어 치우고 시간 안배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여름 행사의 필요성과 특징을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학생들의 친교와 이해를 이유로 색다른 프로그램이 첨가되고 환경을 달리하여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 특징의 하나는 될지 모르나 필요성이 될 수는 없다. 차라리 지금과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다분히 소비적인 수양회보다는 평소 귀로 익힌 주님의 사랑과 회생의 참뜻을 이곳에 실천해 보는 체험적이며 봉사적인 수양회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주님의 사랑을 손과 발로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못된다면 굳이 수양회라는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
.....님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길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
.....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인.....
.....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충현」 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허셀 포드 박사 저
박 영 관 박사 역

十 誠 命 講 解

예수교문서선교회 발행
4·6판, 188면, 값650원

요새 흔히 교회의 가치관이 너무나 사회의 가치관을 따른다고 하여 기독교 윤리관의 올바른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가령 성수일 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엇갈린 개념과 신앙관·생활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때로는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이질감 같은 현상에 부딪혀 보기가 일쑤다.

우리는 십계명이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에서만 아니라 20세기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과 윤리에 규범이며 표준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에 핵심이 되는 십계명은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그대로 생활화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허셀 포드 박사가 쓴 이 십계명 강해는 이런 관심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준다. 열구실에서 나온 이론만이 아닌 실제적 체험에서, 즉 이론과 실재를 병행시켜 가며 명확한 해석을 던져주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십계명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영존함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권위있는 것이라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여섯 계명들은 세상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서 기둥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 포드 박사는 전형적인 목회자이며 저술가이다. 특히 이 책은 그의 설교집 중 대표작으로 설득력 있게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바가 있다. 부드러운 설교문체에서 부담감 없이 읽으며 역자가 그려왔던 것처럼 저자의 심오한 영적 강해에 도취되어버리는 무엇이 있다.

조순근 집사(「월간 충현」 편집위원)

■ 찬송가 해설 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새 33)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올려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을 들라 하면 이 33장을 꼽는데 별 이의가 없으리라. 그만큼 이 찬송은 그 곡하며 가사가 불려도 불려도 실증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찬송이다. 연전에 필자 일행이 설악산을 찾았을 때 천불동 계곡의 경관을 이 찬송으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던 기억이 새롭다.

이 찬송의 작사자 칼 보버그(Carl Boberg, 1859~1940) 목사는 종교지의 편집자이자 정치인으로 스웨덴의 상원의원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여름 뇌우 후 스웨덴의 초원과 호수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그가 지으신 하늘의 별, 올려피지는 뇌성, 초목과 숲 등 자연의 미(美)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족하신편데도 그의 독생자까지 세상에 보내사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관대하심은 내 영혼이 길이 길이 찬송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였다.

이 찬송시는 스웨덴의 민요와 운율이 같아 그 민요곡에 맞춰 부르기 시작했는데 스웨덴 성도보다는 이웃 나라 성도들에게 더 많은 감화를 주게 되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독일 등으로 번역되었다.

1927년 이 찬송가가 소련에서 제판이 되어 시부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찬송으로 많이 불리던 중 당시 이곳에 선교사로 와 있던 런던 태생의 스튜어트 하인(Stuart K. Hine) 목사가 매우 감명 깊게 느껴 처음 3절까지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대전후 영국에서 제 4절을 첨가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찬송은 그후 각종 대회에서 수없이 많이 불려, 어느덧 20세기 성도들의 가장 인기있는 찬송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역시자 하인 목사의 소개에 의하면 그가 체코의 카파티안 산촌에서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고 있을 때 들려온 그 우렁찬 뇌성의 기억이 이 찬송시의 첫절을 쓰게 하였고, 연젠가 루마니아의 한 벼촌을 방문했을 때 장엄한 숲 속에서 젊은이들이 만도린과 기타에 맞추어 터져나올 듯 부르던 노래가 이것의 노어(露語) 찬송이었는데 이것에 감동되어 2절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칼 보버그 목사가 받은 영감의 시이나 역시자인 스튜어트 하인 목사의 영감도 많이 첨가된 찬송시라고 할 수 있겠다.

구역 소식

■ 축하합니다(6월 중 결혼)

- 한대선/조말배 집사 아들—10일, 충현교회
- 이신복, 조경태/정년부 회원—14일, 충현교회
- 장혜경/최경순 집사 딸—19일, 기독교대화관
- 김원호/김정선씨·조계진 집사 아들, 최연숙 양—23일, 수도에식당
- 우중근/이은선—28일, 충현교회

■ 위로드립니다(6월 중 별세)

- 박언조/정능구역—29일
- 전영복/윤수현 권사 자부—31일

■ 6월 중 해외이주 가족

- 권금신/제일성가대 솔로리스트—24일, 서독
- 송인식/종로구역(음악 연구자)—25일, 미국

■ 구역 인사이동(6월 29일 부)

- 명, 초동구역 권찰 나봉도
- 명, 감실구역 권찰 이마리아 집사
- 명, 서교구역 권찰 조정옥 집사

—■ 성황이룬 김애리 귀국연주회 ■—

충현교회의 자랑인 세계적 피아니스트 김애리(장영옥 집사 딸)양의 귀국 피아노 독주회가 한국음악협회 주최, 조선일보 후원으로 지난 7월 5일 저녁 국립극장에서 성대히 거행, 한국의 음악 팬들과 본교회 많은 성도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조상현 씨는 그의 인사말에서 미국의 많은 콩쿠르에서 5회 1등 입상한 김양의 눈부신 성과에 대하여, 이것은 김양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큰 자랑이라고 크게 칭찬하였다.

김양의 발표곡은 다음과 같았다.

- 쇼팽(F.F. Chopin)
발라드 제 4번 F단조 Op.52
- 바하(J.S. Bach)
토카타 D장조 BWV.912
- 바야비(S. Barber)
소나타 E플랫 단조 Op.26
(한국에서 첫 공연)
- 베토벤(Beethoven)
소나타 No. 22 F장조 Op.54
- 슈만(Schumann)
교향적 연습곡 Op.13

■ 구역장 노우트⑥

해외이주 예정자 교육

백 성 룡 목사

(구역권찰회장)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일정기간 일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지만 돌아올 기약없이 영주·정착을 목적으로 온 식구와 함께 이민길에 나선 사람이 더 많다. 비록 잘 살기 위한 일이라지만 서로 서운한 이별의 정을 나누기란 참으로 괴롭다. 이렇게 조국을 뒤에 두고 눈물로 떠나는 내 동료, 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시작된 것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해외이주 예정자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① 애국·애족하는 성도가 되어 ② 계속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며 ③ 어느 곳에서나 본교회와 해외에 있는 본교회 성도들과 유대를 갖게 함으로써 ④ 선교사업에 힘쓰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한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앙생활: 생활여건이 다른 외국에 가서도 본교회에서 제독한 바른 신앙의 교리를 따라 경건생활과 일반생활을 성경에 맞도록 영위하게 한다. — ① 왜 나는 성도가 되었는가? ② 개혁주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③ 신앙과 윤리의 간격을 배우는 길.

교회관과 교회 선택의 방법: 수많은 교파의 교회 중 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봉사하기 위해 교회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교회관 ② 교회의 기능 ③ 교회 선택의 방법.

성경적인 국가관·민족관: 신앙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조국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치도록 한다. — ① 국가·민족·가정·교회와의 관계성. ② 신앙을 위한 선한 싸움. ③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참여문제와 그 한계.

선교와 해외활동 요강: ① 본 교회와 계속적인 유대문제. ② 해외 이주자들과의 유대문제 ③ 선교사업 참여문제.

이같은 교육이 성공하려면 구역요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우선 3개월 이내 출국 예정자를 조사·보고할 일이다. 또 매월 첫주 월요일 밤에 실시되는 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권유하며 그 어느 때든 한번은 교육을 꼭 받게 하여야 한다.

성도의 교제를 위해 출국 전에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구역에 배 때 일을 겸해서 하던 더 좋다. 그러나 구역원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이 가는 일은 삼가며 언제나 전례를 남기는 일에 신중을 기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념품을 전하는 것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 출국 당일 비행장에 환송 나가는 일도 좋으나, 떠나기 전에 집에서 석별함이 오히려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본다.

바야흐로 시작된 올 여름행사

—6천여 성도의 뜨거운 정성에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며—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있었던 『제2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을 선두로 하여 우리교회의 올 여름 행사가(18페이지 우리교회 올 여름행사 계획 참조) 시작되었다. 강원도 전역과 한독노회와 수도노회 소속 농어촌교회 교역자 65명이 초청되어 훈련을 받았는데 교역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결실을 갖게하는 아주 값지고 귀한 훈련이었다고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었던 『제2회 전방부대 군중사병 훈련』이 육군 제1사단 휴양소에 실시되었는데 이 훈련에는 군부 3명과 군중사병 55명이 참가하여 훈련을 받았다. 군중사병 한사람이 600여명의 사병을 담당하여 전도활동과 신앙생활 지도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예배인도까지 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이번 훈련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열면 간증과 앞으로 이리러한 귀한 훈련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을 보아 역력히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오는 15일부터는 청년부 수양회가, 16일부터는 제일성가대 수양회가 시작되며 계속하여 주일학교 각부 계절학교와 수양회 및 『제5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 『농어촌 전도대 파송』등 여러가지 여름 행사가 계속하여 이어질 것인데, 이 모든 행사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히 성도 여러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정성어린 물질적인 뒷받침이 간절히 요청되고 있다.

굳게 다져지는 해외선교

홍콩·홍해지역에 곧 선교사 파송

1969년 9월 우리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서만수 선교사 내외가 인도네시아로 파송된 이래 7년만에 또 다시 홍콩과 홍해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외복음선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예상되는 홍해지역 선교사로 7월 말경에는 이연호 전도사(교동부 지도)가 파송될 예정이다. 이 전도사는 지난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현재 노회의 강도사 인허를 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예정일에 선교사로 파송되게 된다면 파송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총회와 노회에 특별청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단 목사(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예정지인 홍콩으로 곧 파송될 것이라 하는데 잘되면 이들 두 선교사의 파송예배를 7월 말경에 드리게 될 것 같다.

총 5,445명에 2,340세대

6월말 현재 우리교회 교인수

지난 6월말로 올 춘계대심방을 모두 끝낸 구역원환회가 집계한 것을 보면 6월말 현재 우리교회 교인수는 모두 5,445명(남 2,152명, 여 3,292명)에 2,340세대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하면 세례 3,357명(남 1,160명, 여 2,197명), 유아세례 611명(남 323명, 여 288명) 학습 482명(남 209명, 여 273명), 원입 995명(남 460명, 여 535명)인데 이는 작년 6월 말에 집계된 4,697명보다 748명이 증가된 것이며 351세대가 늘었다.

당회장 해외여행 예정

세계선교대회도 참석

올해 안식년을 맞은 당회장 김창원 목사는 앞으로 약 3개월의 계획으로 해외여행길에 오른다. 이 안식기간에 7월 하순부터 스웨덴에서 열릴 세계선교대회에 아울러 참석하기 위하여 오는 7월 20일 출발할 예정인데 그 외에 유럽 몇나라의 교회활동을 살펴보고 미국을 거쳐 사정이 허락되면 인도네시아 선교상황도 돌아볼 계획이라고 한다. 오는 10월 20일 귀국 예정으로 머나날 이번 해외여행이 목적인 바대로 다 이뤄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은 기도하여야겠다.

김태연·이연호 전도사

강도사 고시에 합격

지난 6월 15일 대전중앙교회에서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였던 우리교회 김태연·이연호 전도사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축하를 받았다. 올 가을에 열릴 수도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될 이들 중 김태연 전도사는 초등부 지도와 성경학원 교무의 일을맡고 있고, 이연호 전도사는 교동부 지도로 있으며 한편 해외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농어촌 전도대원 모집 □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밤 홀려 봉사할 전도대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격/전도에 사명을 가진 본교회 교인으로서 20세~50세의 남녀.

◇마감/1976년 7월 18일

◇신청/교회 사무실

◇파송일/1976년 8월 9일~13일

◇파송지역/강원도 9개 지역 예정

산업전도회 창립총회

—산업사회의 복음화로

이상적인 기업운동을 목적—

「중원교회 산업전도회」가 지난 7월 6일(화) 오후 8시 유년부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되었다. 산업사회의 복음화로 이상적인 기업운정이 실현되며 따라서 우리교회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직장이 이 나라의 복의 기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데 근본 뜻을 두고 있다.

이같은 「산업전도회」는 앞으로 산업전도 요원을 양성하여 각종 기업체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지난 7월 4일 새로이 개교한 직업 청소년을 위한 「산업전도교육부」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제와 회원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복음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도 하게 되리라고 하는데 대부분 전문적인 직업인들로 구성되어있고 산업사회의 복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그 특징과 뜻을 찾을 수 있다.

33명이 모인 이 날 총회에서 최석주 장로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새로이 출범한 「산업전도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주일학교 일부 인사이동

—유년부 지도에 김영휘, 고등부 부지도 이승근 임명—

당회는 지난 13일 유년부와 고등부 지도자 및 부감에 대한 인사이동을 결정하였다. 고등부 지도교역자인 이연호 전도사가 선교사로 파송되게 됨에 따라 유년부 지도인 이승근 전도사가 고등부 부지도로 임명되었고 고등부 부지도로 수교하던 김일동 전도사가 사임하였다. 한편 유년부 지도로는 새신자부에서 수교하던 김영휘 선생(청년회장·총신연구원)이 임명되었고 공식적인 유년부 여자 부감은 고등부의 이정애 집사가, 고등부 여자 부감에는 이선일 집사가 임명되었다.

화재 당한 가정 돌보아

—4 가정에 금일봉씩 전달하고 위로—

교회는 지난 목경 아파트의 화재로 인하여 불시에 거처와 살림들을 불태워 버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 가운데 4가정을 택하여 각각 금일봉씩을 전달하고 위로하였다. 화재를 당하기 전에도 생활고로 시달려온 이들에게 성도의 따뜻한 위로와 구제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노년부 청운양로원 방문

—올해 첫 수양회도 열 예정—

주일학교 노년부(부장 윤종순 장로, 지도 김재창 목사)는 7월 중에 시내 청운양로원을 방문하여 무의탁 노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위문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울러 양로원의 운영실태를 견학도 하고 오리다 한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하기 수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70여명의 학생과 13명의 교사가 있다.

산업전도 교육부 개교

직업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지도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전도교육부」가 지난 7월 4일 개교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일학교는 이제 11부에서 12부로 확장되었다. 오후 12시 10분부터 유치부실을 빌려 개교한 이날 개교식에는 여러 직장에서 기능공으로 종사하고 있는 남녀 직업청소년 39명(남 9명, 여 30명)이 참석하였으며 초대 부장인 황기성 장로의 사회로 지도 교역자 홍종만 목사의 「나의 달란트/마 25:30」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날 개교식에는 장로 여러분과 관심 있는 분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전심으로 축하하여 주었다.

군인찬송 2천권 보내기로

전도위원회는 지난 군종사병훈련에 참가하였던 1사단 장병들을 위하여 군인 찬송가 2천권을 보내기로 하였다. 아울러 합동측 군복들의 수양회를 위하여 5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하였다.

토막 / 뉴스

*교회는 오는 7월 18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

*무더운 7·8월은 특별 집회를 가지지 않는다.

*당회는 「산업전도교육부」 남부감에 정은표 집사를, 여부감에 정선화 집사를 임명.

*「월간 중원」에서는 여름 행사에 대한 제형담을 8월말까지 모집.

*전도의 달을 맞아 6월 27일 실시된 선교 웅변대회에서 고등부 김경애가 1등하였다.

*구역권찰회는 3월 9일부터 시작된 춘기 대심방을 지난 6월 29일로 모두 끝냈다.

*새신자부는 7월 4일 등반생 실태조사 및 평가회를 열고 10일에는 자체 교사연수회를 가졌다. 강사는 정기성 목사.

*영아부는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는 제철학교 기간에 자모교육도 아울러 실시한다.

*유적부는 6월 30일 성경이야기 대회를 열었는데 꽃반의 안정오, 열매반 장혜진 어린이가 각각 1등을 하였다. 또 상반기 개근자가 61명이나 되었다.

*중등부는 7월 17일 총회신학대학에서 열릴 전국 중·고등학교 성가 경연대회에 40명이 참석할 예정. 또 오는 8월 29일에는 중등부 예배실에서 시 119편을 내용으로 성경삼송대회도 연다.

*대학부는 7월 11일 12시부터 대학부실에서 대학부 총동원의 달을 열었다.

*산업전도 교육부는 남녀 직업청소년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매주 오후 12시 10분부터 시작하며 장소는 유적부실.

*노년부는 6월 20일 성경 퀴즈대회를 열었는데 홍찬욱 집사가 1등을 하였다.

□ 축!

산업전도회 창립총회

◎ 바로잡습니다 ◎

- 6월호 14페이지 바른쪽 아래서 19예를:인간화는 신본주의→인간화는 실인본주의
- 6월호 12페이지 바른쪽:자신의 사역→자신의 사역
- 6월호 16페이지 바른쪽 중간:오희용→오이용, 최승욱→최수남

1976년 여름 행사 계획

1. 성경학원 제2회 농어촌교회 교역자 초청훈련

- 주제: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힘쓰라(딤후 4:2)
- 일시: 6월 21일~6월 25일
- 장소: 충현교회
- 참가인원: 65명(강원도 전지역 경기도 일부지역)
- 소요경비:
- 강사: 김득룡·정상우·홍선기·김희보·김명혁·백성룡·홍종만·신성중·최충열

2. 청년부 제6회 하기수양회

- 주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요 1:41)
- 일시: 7월 15일~7월 17일
- 장소: 일석 태화관 캠프장
- 참가예상인원: 회원 130명, 교사 4명
- 소요예산:
- 강사: 석태운(신정교회)

3. 제일성가대 제1회 하기수양회

- 주제: 주 날 불러 이르소서
- 일시: 7월 16일~7월 17일
- 장소: Y·M·C·A 캠프장
- 참가예상인원: 대원 71명
- 소요예산:
- 강사: 정상우

4. 대학부 제7회 하기수양회

- 주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빌 1:27)
- 일시: 7월 19일~7월 23일
- 장소: 충북 대포 수양관
- 참가예상인원: 학생 130명, 교사 10명
- 소요예산:
- 강사: 석태백(경향교회)

5. 성경학원 제5회 농어촌교회 평신도 지도자 초청훈련

- 주제: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힘쓰라(딤후 4:2)
- 일시: 7월 22일~7월 26일
- 장소: 충현교회
- 참가예상인원: 80명(강원도 전지역, 경기도 일부지역)
- 소요예산:
- 강사: 백성룡·김재창·정상우·정기성·홍종만·신성중·정사현·홍성기·박영관·김태현·이연호·정연희

6. 유치부 제23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 주제: 우리 하나님
- 일시: 7월 26일~7월 29일
- 장소: 유치부실
- 참가예상인원: 학생 250명, 교사 29명
- 소요예산:
- 강사: 홍종만

7. 초등부 제23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 주제: 우리 하나님
- 일시: 7월 26일~7월 29일
- 장소: 초등부실
- 참가예상인원: 학생 515명, 교사 71명
- 소요예산:
- 강사: 정기성

8. 중등부 제14회 하기수양회

- 주제: 귀히 쓰이는 그릇(딤후 2:21)
- 일시: 7월 27일~7월 30일
- 장소: 불암수양관
- 참가예상인원: 학생 300명, 교사 30명
- 소요예산:
- 강사: 김경원(대구 서문교회)

9. 고등부 제14회 하기수양회

- 주제: 감정의 영감을 주소서
- 일시: 7월 27일~7월 30일
- 장소: 충희신학대학
- 참가예상인원: 학생 270명, 교사 20명
- 소요예산:
- 강사: 김기중(대전 중앙교회)

10. 유년부 제23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 주제: 우리 하나님
- 일시: 8월 2일~8월 5일
- 장소: 유년부실
- 참가예상인원: 학생 320명, 교사 70명
- 소요예산:
- 강사: 이승근

11. 초등부 제4회 하기수양회

- 주제: 참된 예배를 드리자(요 4:24)
- 일시: 8월 2일~8월 4일
- 장소: 성미가엘 신학원(영등포)
- 참가예상인원: 학생 100명, 교사 30명
- 소요예산:
- 강사: 김동택

(11면에 계속)

연집하고 나서

*...해마다 여름이 오면 방학과 휴가기간을 이용한 각종 행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계획』과 『집중된 훈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모로 유익한 일이다. 그런데 이처럼 유용한 시간과 바람직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각 여름행사들의 그 효과면 결과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막 행사를 위한 계획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이제는 행사를 위한 준비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행사를 끝낸 후의 연결까지도 아예 처음 준비단계부터 생각하며 계획을 짤 때면, 훨씬 발전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좋은 주제·구호들이 항상 수양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양회를 끝낸 후 우리의 일상의 구호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하여 이 무성한 여름에 『집중적인 신앙훈련』이 행사 후에 오는 가을에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다 깊은 안목을 갖고 이 여름에 들어서자.

>표지 설명<

4년 전에 처음으로 실시한 어린이수양회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으레 중등부나 고등부 이상에서나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던 수양회였기에 큰 성과는 더욱 좋았다. 그러기에 『우리교회 유·초등부 모든 어린이를 수양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면...』 하는, 조금은 어리석은 듯한 소망을 갖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어린이 수양회에서 차지된 시간 계획 중 쉬는 시간에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밝음을 보라! 이 어린이들의 밝음이 있는 한, 우리의 사회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속화된다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월간 「충현」 7월호·통권제31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중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중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7월 11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1973년 가을, 우리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며 개원한 성경학원이 지난 6월 20일 16명의 1회 졸업생을 내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의 모습! (앞줄 왼쪽부터) 김의철<남>, 김정임, 독고건식, 최임덕, 이운호, 안윤진, 차순정, 김원선<남> (뒷줄 왼쪽부터) 우문희, 김영숙, 손명순, 서용근, 허인숙, 한동숙, 유말선.



◇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유치부 어린이들은 지난 6월 27일 「성경이야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사무엘아! 사무엘아!」하며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 어느 꼬마의 모습이다.



◇ 6월 「충동원 전도의 달」을 맞으며 각부 주일학교에서는 활발하게 전도를 실시했다. 특별히 고등부는 지난 6월 26일(토) 저녁 성가대 주최로 「선교음악회」를 가지고 선교에 대한 참여·지원·관심을 북돋우기도 하였다.



◇ 또한 「땅끝까지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선교웅변대회를 지난 6월 27일 오후 4시부터 우리교회 본당에서 가졌다. 초등부 어린이도 참가한 웅변대회는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 제 2회 농어촌 교역자 초청훈련이 지난 6월 21~23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강원도지방을 중심으로 초청된 금번 훈련은 65교회의 65명의 교역자가 참가했다.



선교사 꺾 보내주세요

홍해지역에 취업차 나가 있는 동포 성도들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호소해 온 편지가 많이 있었다. 다음은 본교회 여성도이던 최모씨가 당회장 김창인 목사에게 부쳐 온 글이다. <편집자>

홍해지역에 있는 중현의 한 작은 성도입니다. 금번에 이곳 한인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여러가지를 인하여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아시고 크게 갚아 주시니 더욱 힘이 솟습니다.

금직한 신구약성경과 찬송가를 100권씩이나 허락이 되니 이곳 교우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김목사님의 설교녹음테이프와 월간『중현』, 전도지·주보 등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도 보내주시니 감사하고 더욱 든든한 마음에 의욕이 생깁니다.

이곳에 한인 교회가 선 것은 지난 5월 21일이 첫 예배였읍니다. 그 전까지는 국제기독교인회(International Christian Fellowship)에 같이 참석하다가 그쪽 외국인 성도들과 헤어지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우리말 예배가 더욱 아쉬워 분리되어 나왔읍니다. 시내와 좀 떨어진 사막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 의자가 80개 정도인데 전에 고국에서 장로로 수고하셨다는 분을 감사로 모시고 신앙이 돈독한 몇몇이 주축이 되어 알립니다. 앞으로 이 예배처를 모르는 동포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할 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훈련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아직은 영성하지만 예수님 한분을 목사님으로 알고 주님의 생가가 그리워 6월 현재 62명이 모입니다. 예배는 아침 10시 30분에 시작되며 지난 주부터는 예배시작 30분 전에 말씀공부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목사 없는 우리가 교회를 따로 세우는 데에 두려워 어찌할고 하며 염려도 했으나, 믿음이 앞은 자의 염려에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성경과 찬송가 중에서 우선 10권씩을 입수(入手)했읍니다. 에피소우드가 있을 정도로 신기하게 저희에게 도착되었습니다.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하는 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새삼 깨달으며 저희가 받은 성경과 찬송가로 하나님만 높이는 참 성도들이 되고자 합니다.

이곳에 선교사를 꼭 보내주세요. 앞으로 5년간 이 나라에 한국인들이 더 많이 오리라는데, 매마른 모슬렘의 땅에서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려지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땅끝에 말씀 전파가 이뤄지는게 아니겠어요?

목사님, 계속 건강하셔서 하나님 사업에 지지심이 없기를 기도합니다.